* 마태복음 1장:
  + 1절에 아브라함 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라고 소개한다.
    - 이것은 신학적 선포이다.
    - 즉 예수님이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라 라는것을 암시한다.
  + 다말, 라합, 룻, 우리아의 아내
    -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를 제외한 나온 여자 이름들.
    - 이들의 특징은 다 부끄러운 과거사가 있는 인물들이다.
    -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민이라고 생각했다. 그러나 이런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가문이 무조건 좋고 선민적인 가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.
  + 세례요한 은 세계종말론적인 선지자 이다.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다가왔으니 회계하라고 말했다. 그런 세례요한의 메세지를 똑같이 퍼트리심으로써 종말론적인면 을 부각시키셨다.

예수님 당시에 환경을 Greco(Greek) – Roman World 라고 한다.

* + 로마의 지배를 받고있었다.
    - 정치, 법, 군도(군사들이 다니는 길) 이 널리 퍼져있었다.
  + 헬라의 문화, 언어, 사상, 철학이 널리 퍼져있었다.
  + Judaism(유대교 사상)
* 신약시대 때의 로마의 황제들:
  + 1대 : Augustas (주전 27BC – AD 14)
    - 신약성경 에서는 가이샤 아구스도 라고 나옴.
    - 훌륭한 통치를 했다고 함.
    - 국가를 재정비 하여 60년동안 평화로은 시기를 유지함.
    - 그래서 이 시기를 Pax Romana (로마의 평화) 라고 함.
    - 이때 예수님이 나심.
  + 2 대: Tiberius (AD 14-37)
    - 디베료 가이샤 라고 신약성경에 나옴.
    - 세례요한 과 예수님 공생시대 때 로마의 황제였음.
    - Augustas 가 티베리우스 를 양아들로 삼았음. 그리고 자신의 방탕한 딸과 결혼시킴. 원래 이미 결혼했었는데 아우그스타스 가 자신의 딸과 결혼시킬려고 강제로 이혼시킴.
  + 3대: Caligula (AD 37-41)
    - Tiberius 의 조카의 아들.
    - 성경에는 나오지 않음.
    - 어릴때부터 빨간 부츠를 신고다녀서 군인들로부터 Little Boots 란 별명이 생김.
    - 어릴때부터 섬에서 자기의 누나와 같이 갇혀살았는데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나와 근친상관 하게 되고 그 이유로 정신착란까지 가게됨.
    -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섬기게 함.
    - 유대인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라고 강요함.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함.
    - Caligula 는 왜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신으로 섬기는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함.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 신을 섬기는것이 아주 당연하고 더 좋은것으로 여겨졌을 때임. 섬기는 신이 많을수록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많아서 좋은것이라고 생각했덧것임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유일신 을 무신론자 라고 비난하기도함.
    - 유대인들은 Caligula 의 동상을 자신들의 성전에 넣을려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할꺼라고 하며 반대함.
    - Caligula 가 유대인들을 벌하기전에 암살을 당해서 이 일이 해결됨.
  + 4대: Claudius (AD 41-54)
    -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라고 라옴.
    - 소아마비를 겪었다고 함.
    - 얼굴도 마비가 있어서 외모가 보기 안좋았다고 함.
    - 이교도(유대교를 포함한) 을 안좋아했다고 함.
    - AD 49 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림. Chrestus 라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Suetonius 라는 당시의 역사학자가 기록함. 아마 초대 그리스도인 들 (Chrestus) 을 말하지 않는가 하고 학자들이 생각함. Christos 를 잘몰라서 철자를 Chrestus 라고 잘못쓰지 않았나 학자들이 짐작함. 왜 폭동을 일으켰냐 하는것은 일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나하고 학자들이 주장함.
    - 이 일이 행18:2 에 나옴.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교회가 설립된 년도를 알수있음.
  + 5대: Nero (AD 54 – 68)
    -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첩의 전 남편의 아들.
    - 나중에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기의 어머니도 죽임.
    -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다고 함.
    - 그러나 성격상 정치가 보다는 예술가 성격이 깊었다고 함.
    - 59년도에 어머니를 처형함. 어머니가 권력을 잡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. 그 후로 폭정정치를 함.
    - 64년도에 로마 대화재 가 남. 로마의 대부분이 탐.
    - 그런대 이 화재가 네로 가 일부로 화재를 냈다는 소문이 남. 왜냐하면 자신의 궁전에서 로마의 화재를 보면서 시를 썼다고 함. 그러자 사람들이 네로를 죽이자고 폭동을 일으킬 상황까지 감.
    - 그러자 네로가 다급해져서 그리스도인 들에게 뒤집어 쒸음.
    -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불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는것을 악이용해서, 기독교인들이 불심판을 기다리다 못해 불을 저지렀다는 것이라고 뒤집어 쒸음.
    - 기독교를 향한 첫 대대적인 핍박.
    - 이때쯤 (64-67) 베드로 와 바울 이 순교 했음.
    - 네로도 결국 자기의 종의 집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종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종이 죽여줌 으로써 사망함.
  + 6-8대: Galba(68), Otho(69), Vitellius(69)
    - 셋다 군인.
    - 서로 죽이고 황제가 됨으로써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명이나 황제가 바뀜.
  + 9대: Vespasian (69 – 79)
    - Josephus Flavius 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유대인 독립운동가의 사령관으로써 Vespasian 황제한테 잡혀서 죽게됨.
    - 그때 요세프스 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6개월안에 로마 황제가 될꺼라고 예언함. 그래서 Vespasian 이 기뻐서 살려줌.
    - 실레로 6개월 안에 황제가 되자 그가 요세프스 에게 Flavius 라는 자기의 성을 주고 자기 옆에 두면서 집도 주고 재물을 주면서 엄청나게 잘해줌.
    - 그때 이 요세프스 라는 사람이 2개의 역사서 를 씀.
      * Antigeities(고대사)
      * Jewush Wars (66-70 년 때의 유대인 독립전쟁에 대해 씀)
    - 유대인들은 원래 역사를 따로 안씀. 성경이 있기때문.
    - 하지만 요세프스 가 쓴 이 2가지의 역사서 때문에 여러가지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많은것들을 알수있음.
    - 베스프시안 은 나이가 많아서 황제가 됬음.
    -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는 장군이었음.
    - 그때 군인들이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베스프시안 을 황제로 초청해서 황제가 되게됨.
  + 10대: Titus(79 – 81)
    - 디도 황제는 짧게 통치했지만 아주 훌륭한 통치를 했다고함.
    - 많은 오락시설을 로마에 세움.
    - 3년 만에 죽음.
  + 11 대: Domitian (81-96)
    - 도미시안 은 디도의 동생.
    - 잔인했다고 함.
    - 자신이 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함.
    - 많은 신들중에 하나로 섬기게 한것을 넘어서 황제예배(황제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것) 를 로마에 국교화 시킴.
    -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다 탄압했음.
    - 다른 종교들은 여러 신을 섬겼으므로 상관없었지만 유대교 와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기 때문에 부딪혔음.
    - 이때 기독교에 순교자 들이 엄청나게 나왔음. 물론 배교자 들도 많이 나왔다고 함.
    - 이때 요한계시록 이 쓰여졌음. 요한이 밧모 라는 섬으로 귀향가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심.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영생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것이 요한계시록의 포인트임. 즉 이때 순교의 시대 였으므로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것임.
  + 12대: Nerva (96 – 98)
  + 13대: Traian 황제